

美國의 경제적 제재와 리비아石油産業의 活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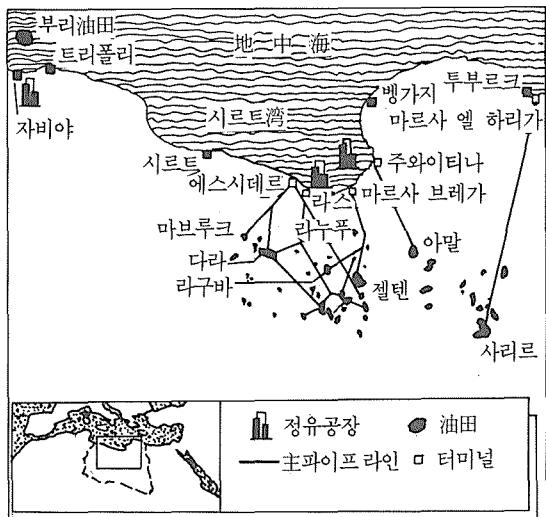
—大韓石油協會 弘報室—

지난 4월 리비아폭격을 명령한 레이건 美대통령의 의도중 하나는 가다피체제의 기반을 약화시키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다피통치에 큰 위협을 주고 있는 것은 石油收入의 급감이다. 리비아의 石油收入은 80년 226억달러를 피크로 85년에는 약 80억달러로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올해에는 35억달러에 그칠 전망이다.

石油收入의 감소는 거의 전적으로 油價급락과 순수 石油輸出量이 적은데 기인한다. 산유량은 80년 180만B/D에서 81년에 120만B/D로 떨어졌고, 82-84년 동안에는 110만B/D 수준에서 안정세를 보였다. 작년의 산유량은 약 105만B/D였다. 그러나 이중 15만B/D는 상업차관의 변제에, 그리고 소련으로부터의 무기 및 기타 장비등 도입에 10만B/D 이상을 사용하고 있다. 국내소비는 13만B/D이다. 따라서 작년에 가동을 시작한 라스라누프 精油工場으로부터의 製品 10만B/D 외에 순수 판매량은 55만B/D에 불과하다.

최근 리비아의 산유량은 생산능력에 훨씬 못미치고 있다. 70년에 330만B/D의 산유량을 기록한 이후 政府는 자원보존의 명목으로 減産을 실시했다. 그결과 70년대 전반기동안 산유량이 서서히 감소하다가 후반기에 200만B/D 생산으로 안정을 유지했다. 리비아에서 石油은 輸出 資源의 99%를 차지하고 있어서 石油의 공급과잉이나 油價하락은 곧 심각한 타격이 된다. 따라서 정부지출이 삭감되고 일련의 주요 개발계획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리비아의 石油生産시설 概圖



다른 OPEC (石油輸出國機構)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리비아도 石油 수출에 있어서 네트백가격시스템을 근거로 하고 있다. 지난 1월 리비아는 스페인의 Enpetrol 精油會社와 Sarir 原油 4만 B/D의 공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격은 각각 50%씩 북서유럽과 이탈리아에서의 제품가치를 기준으로한 네트백 가격이다. 또한 이탈리아의 ENI에 네트백방식으로 2만 5천 B/D를 공급하고 있으며, 채무상환대금으로 4만 B/D를 지불할 예정이다. 같은 방식으로 터키에도 무역결제 대금으로 原油를 지불하고 있다.

美國의 제재조치로 石油會社들 철수 잇달아

油價 하락외에도 리비아는 국제테러에 관련됐다는 혐의로 미국이 가하고 있는 일련의 경제적 제재조치도 함께 감수하지 않으면 안된다. 82년 레이건 美대통령은 美國의 리비아 原油 輸入을 금지하는 한편 石油 및 가스산업 시설설비의 對리비아수출도 금지시켰다. 또한 美國회사와 그 근로자들에게 리비아에서 철수할 것을 촉구하고 민간인들의 리비아방문을 금지시켰다. 작년 11월 白廳館은 다시 리비아 原油 수입금지를 확대하여 精製品까지도 적용시켰다.

올해 1월에는 리비아내 모든 美國회사와 근로자들에게 철수를 명령하였다. 石油부문에서 이 조치에 영향을

받는 회사는 5개社로 모두 30만 B/D 이상의 지분원유가, 관련돼 있다. 이중 옥시덴탈社가 가장 큰 규모로서 최근 까지 NOC (리비아국영석유회사)와 19대 81의 생산분배 계약아래 49대 51로 지분참여를 한 바 있다. 그러나 작년 6월 30일 옥시덴탈社는 오스트리아의 OMV社에게 소유지분의 25%를 매각하였다. 따라서 현재 36.75%의 자본참여와 14.25%의 생산분배 몫이 남아 있다.

콘티넨탈社와 마라돈社는 각각 16.3%, 그리고 아베라다 헤스社는 8.2%로 NOC와 합작투자하고 있다. W.R 그레이스社는 시르트 石油會社의 라구비 油田에 12% 자본참여하고 있다. 한편 엑슨과 모빌은 다이상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81년과 82년에 각각 리비아에서 철수하였다. 엑슨을 철수 당시 인수자인 국영 시르트 石油會社에게 마르사 브레가에 있는 소규모 油田을 비롯하여 資産 일체를 9천 5백만달러에 매각하였다. 모빌의 소유자산 청구는 중재에 붙여졌다.

올해 美측의 제재조치 직후에 워싱턴 당국은 리비아에서 무작정 철수만 한다면 리비아내 美國의 재산이 모두 몰수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 따라서 10억달러를 상회하는 자산을 가다피정부에게 불로소득으로 안겨줄 수 없다는 판단아래, 美회사들은 적정한 가격으로 賣物로 내놓은 채 임시허가로 조업을 계속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5개회사중 자산처분을 위한 협상에 들어간 회사는 하나도 없다. 美회사의 철수문제가 완결될 때까지 리비아내에서 얻은 수익은 美정부의 에스크로우計定 (escrow account)에 예치되고 있다. 이와 비슷한 근거로 리비아에 남아 있는 美國의 油田서비스회사도 수개나 된다.

지난 69년 가다피가 집권한 이래 리비아의 급진회교사회주의 정책은 외국의 석유회사에게 비우호적인 투자분위기를 조성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석유 회사들은 리비아 총산유량의 약 70%를 점하는 중요한 역할을 유지하여 왔다. 정부의 투자비중은 각 콘소시엄마다 큰 차이가 있다. 극단적으로 사리르 및 나푸라 油田은 100% NOC의 자회사가 소유하고 있으며, 그 반대로 윈터셀이 100% 단독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70년대 초이후 생산분배에 관한 새로운 계약이 맺어졌다. 대부분 74년에 마무리진 초기 계약은 생산분배에 있어 육상유전의 경우 81대 19, 해상유전의 경우 85대 15로 리비아측 비중이 높다. 운영권자는 자기세어의 石油

리비아의 석유생산 현황(1985)

지분구성	리비아 세어	생산량 (B/D)	생산량중 리비아 세어(B/D)
Agip*50%, NOC50%	50%	160,000	80,000
Elf Aquitaine*75%, OMV 15%			
Wintershall 10%	85% ^(a)	1,100	935
Oasis*100% (Comprising Conoco 16.33%, Marathon 16.33%, Amerada 8.17%, NOC 59.17%)	59.17%	395,200	233,840
Occidental* OMV, NOC51% ^(b)	51%	95,000	48,450
Occidental*OMV ^(c)	81% ^(a)	62,000	50,220
Wintershall* 100%	0%	2,000	0
Gelsenberg17.1%, NOC	82.9%	58,500	48,496
Grace Petroleum 12%, Sirte(NOC)88%			
(Raguba field)	88%	24,867	21,883
NOC, Ageco, Umm al Jawabi Sirte(except Raguba field)	100%	250,333	250,333
계	69.9%	1,050,000	734,157

운영권자

- (a) 생산량분배 비율
- (b) 85년 6월30일 Occidental社의 49%의 지분 중 25%를 OMV에 매각
- (c) 85년 6월30일 Occidental社의 100%지분 중 25%를 OMV에 매각

를 면세로 취득하며 로얄티도 받는다. 그러나 나타나는 결과에 관계없이 모든 탐사비용을 지출해야 할 의무가 있다. NOC는 육상유전의 경우 세어만큼의 개발비용을 부담하며, 해상유전의 경우 세어보다는 적은 비용을 부담한다. 그러나 油田의 생산성연환이 지나면 운영권자는 모든 것을 NOC에 반환하여야 한다.

石油開發을 촉진시키기 위한 분위기 조성

탐사활동을 부추기기 위한 각종 조치들이 나오고 있다. 79년 리비아정부는 생산분배 인허가시 할당받는 상당히 넓은 수혜구역을 포기할 것을 검토하였다. 그결과 78년 말 78만 3천평방km에 달하던 수혜구역이 79년말에는 64만 5천평방km로 감소하였다(이중 육상은 50만 6천 평방

km). 그후 85년말에는 64만 3천 73평방km로 더욱 감소하였다 (육상은 54만 4천 7백 63평방km).

80년대초 적극적인 탐사활동을 벌인 결과 일련의 상당한 규모의 油田들이 발견되었다. 84년 JANA 국영통신사에 의하면 Al Waha社가 시르트灣의 Bu Attifel油田 북서쪽 NC98구역에서 약 624백만배럴의 매장량을 발견했다고 발표하였다. 같은해 Agip社도 벵가지 북서쪽 7마일 지점 MMN - 120구역의 200m 深海에서 油田을 발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JANA 통신사는 이 매장량이 765백만배럴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 발견으로 인해 지금까지 해상유전의 서쪽해역에서만 발견된데 이어 동쪽해역에서 유전발견의 효시가 되었다.

JANA 통신사에 의하면, 작년 국영 아라비안걸프오일社가 사리르 및 마살라 油田에서 신규 매장량을 발견한데 힘입어 리비아의 회수가능매장량은 25% 증가했다고 한다. 아울러 신규 매장량은 총 2,849백만배럴이라고 밝혔다. 또한 같은 해에 시르트 石油社도 트리폴리 외곽 NC35A 구역에서 油田을 발견하였는데, 이곳은 이미 84년에도 경제성있는 油田이 발견된 지역이다. 루마니아의 Rompetrol社도 리비아 국영석유회사와 함께 남서지역에서 1,800B/D 시험생산을 하였다.

올해 상반기중에 NOC는 총 8개의 油田과 4개의 가스전을 발견하였다. 이중 6개는 시르트灣에, 5개는 남서지역의 가다메스灣에, 그리고 1개는 무르주크灣에 각각 위치하고 있다. 이밖에 상업성있는 油田발견에 성공하지 못하고 물러선 회사들도 있다. 작년 9월 브라질의 Braspetro社는 무르주크灣의 NC58구역에서 油田개발에 성공하지 못하고 철수하였다.

현재의 낮은 생산율에도 불구하고 매장량은 약 200억 배럴로 비교적 풍부하다. 가스매장량 또한 풍부하여 작년기준으로 7,300억입방미터로 추정되는데, 이것은 세계 전체의 1%에 약간 못미치는 양이다.

지금까지중 가장 큰 규모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곳은 부리田으로서 튀니지와 국경근처에 있는 해양油田이다. 이 油田의 개발은 튀니지와 의 경계선 분쟁으로 지연돼오다가 82년 헤이그에 있는 國際司法裁判所의 결정에 의하여 착수할 수 있었다. 이 油田은 매장량이 5억배럴로 추정되며 이탈리아係 현지 자회사인 Agip Name社에 의해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이 油田이 87년에 생산을 시작하게 되면, 산유량은 4만B/D 정도일 것이며, 90

년까지 15만B/D로 증가할 것이다.

큰 규모의 海上油田 개발이 진행중

부리油田의 개발에는 적어도 20억달러의 비용이 요구되고 있으며, 개발과 관련하여 일련의 중요한 계약들이 체결되었다. 現代와 사이팸이 콘소시엄을 형성하여 구조물등 시설을 1억5천5백만 달러에 계약하였다. 이 설비공사는 올해 7월에 착공하여 87년 12월에 완공될 예정이다. 작년 프랑스의 EMH社는 15만B/D능력의 계류장을 트리폴리에서 62마일 떨어진 해심 167.5m지점에 설계·조립하는 공사를 따내었다. EMH는 또한 Agip Name社의 발주에 의해 25만3천톤급의 탱커를 하역설비를 갖춘 해상저장탱크로 변환시키는 공사도 하고 있다.

84년에는 이탈리아의 미코페리와 벨레이社가 부리油田에 한쌍의 생산플랫폼을 2억달러에 건설하기로 계약한 바 있다. 리비아의 경제상태 악화와 불확실한 油價전망에도 불구하고 부리油田 개발은 계획대로 추진될 것이라고 Agip社는 말한다.

美國의 경제적인 제재조치가 리비아의 石油産業 전반에 어두운 그림자를 던져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 영향이 심각할 정도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다. 82년 레

이전에 의한 리비아 原油의 수입금지조치는 단지 유럽으로의 수출비중을 높여주는 결과를 초래했다. 리비아의 原油수출에서 유럽이 차지하는 비중이 81년에는 55%에 불과하였으나, 85년에는 68%로 증가하였다. 단일시장으로는 이탈리아가 가장 큰 고객으로 지난 1월 리비아아랍의 국은행이 이탈리아의 石油제별 Tamoil의 지분 70%를 인수함으로써 그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었다. 동 제별은 이탈리아 북부 크레모나에 500마일의 파이프라인 시스템을 갖춘 10만5천B/D 규모의 精油工場과 1000여개의 주유소를 소유하고 있다. 이곳에서의 製品구매에 따라 리비아로서는 하류부문진출후 처음으로 石油製品의 對西歐수출을 이룬 셈이다.

가장 최근에 있는 美國의 제재조치들도 더 이상 효과적으로 리비아경제를 곤궁에 빠뜨리지는 못할 것 같다. 만일 美國이 石油會社와 관련 서비스회사들을 철수시킨다면 리비아는 유럽으로부터 人力을 구하는데 별 어려움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특히 北海에서의 油田 개발이 둔화되고 있는 시점이어서 유럽으로부터의 조달이 더욱 용이해질 것이다. 그러나 原油판매에 관한한 메이저와의 협력 관계 없이는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

(피트롤리엄 이코노미스트 86.6월호)

